

깊고 푸른 얼굴

2015년 창간-시험판

www.lamp.kr

2015년 6월호

교역자의 상징

박영선 목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면 교회를 다음과 같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있고 실제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랑 함께 가야되는 현실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해야 합니다. 속 시원하지 않은 때가 더 많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될 많이 담으십니다. 자주 인용하는 것 같이 혼자 하는 노래가 아니라 둘이 하고, 넷이 해서 화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합창을 하는 것 같은 것, 그것이 교회의 조직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하는 한 실존이 육성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한 존재의 증언이야 합니다.

▶ 2면에 계속

소식지를 내며

최태준 | 남포교회 담임목사



우리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유산을 다음세대에게 제대로 전수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며, 세상은 감당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서의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이 태초 이래로 인류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마치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섰을 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것과 같이 교사는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 3면에 계속

<행복한 멈춤>을 보고

이재철 | 초등3부 교사

지난 수요일(1/21) 수요일예배 때에는 중·고등부가 준비한 뮤지컬 <행복한 멈춤>이 공연되었습니다.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공연하기는 우리 교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수요일예배를 자주 빠지던 나도 이날 만든 핑계로 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 3면에 계속

Issue 이슈

- 박영선 교역자의 상징 2
- 최태준 소식지를 내며 3
- 이재철 <행복한 멈춤>을 보고 3

Series 연재

- 안성희 시연아빠의 다세이(1) 13

Notice 공지

- 편집부 광고 및 공모전 안내 16

News 뉴스

- 사랑부 은혜와 영광의 작은 공동체 6
- 유아부 안녕하세요, 이하랑입니다. 7
- 유치부 하나님만 사랑하는 유치부 8
- 초등1부 말씀과 은혜의 초등1부 8
- 초등2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9
- 초등3부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 10
- 중등부 외계인이 아닌 ... 10
- 고등부 고민과 성장의 공동체 11

Mission 선교

- 유창경 일본, 오사카에서 14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교역자입니다.

1면에서 ▶ 여러분들의 최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정황을 갖지 않으면 내용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힘들고 맘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자책하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의 증언과 가르침이 나와야 그것이 비로소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몫은 권위입니다. 교회학교에서의 권위는 교역자에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권력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권위가 교역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역자를 세움으로서 이 모든 것이 은혜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곧 목사와 전도사를 세움으로서 그들의 실력, 그들의 진심, 그들의 어떤 장점, 단점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아래에 모든 것이 종속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이 종종 함께 하는 조직 속에서 상식, 원칙, 현실과 혼합되어 우리로 씨름을 하게 만듭니다.

근래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많이들 보셨지요. 드라마 속에는 전후 사정이 있고 한 개인의 선택, 변덕, 혹은 무능 같은 것들이 섞여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씨름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교역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과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가 서있는 자리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통치 아래 행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원, 혹은 아쉬움,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경계를 그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같이, 부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원하는 것 같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길러보셔서 아시다시피, 때려도, 내 쫓아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던 것.

우리교회의 당구 동호회에서 제가 제일 잘 칩니다. 사실 기도도 제가 더 많이 했고, 신앙도 더 좋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이 농담을 알아 들으시는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구 백오십 점을 치는 어떤 분은 천점을 치는 저에게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얼마나 간섭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 뭐라고 나무랍니다. 백오십 점을 치는 당신이 천점이나 치시는 목사님께 혼수를 두다니, 당신 말이 되는가?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변명해요. 내가 당구를 치기는 백 오십이지만 보는 눈만큼은 천이다!

그런데 저와 우리 동호회 분들 모두가 그런 말을 재미로 알고 누립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속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정 속에 스스로를 놓아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게 하는 현실을 감당하는 그런 안목을 기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르치고,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허락된 명예라는 것을 아시지 않으면, 늘 완벽에의 결벽증에 시달리시게 됩니다. 자신에게도, 학생에게도, 동료교사나, 조직, 교회, 교계, 사회, 민족, 역사, 운명, 날씨가까지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유익이 없습니다.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당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명예로 알고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현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하십시오. 교역자의 가치를 분별하십시오. 교역자의 자리와 섬기는 자로 함께 합하여 부서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서로가 어떻게 격려하고 존중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이 한 해에는 재미있고 넉넉하게 알아가는 기적을 이루시는 각 부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선 목사 : 남포교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편집자 주 : 이 글은 2월 24일에 있었던
교사세미나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기조연설하신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과 서로의 처지를 더욱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면에서 ▶ 특별히 우리교회는 30주년을 지나면서 지난 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교회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신체적인 제한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받는 교우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랑부, 어린 새싹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유아부와 유치부, 장난꾸러기들과 말팔랑이들과 함께 하시느라 진땀 빼고 계시는 초등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중고등부, 그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학교의 각 부서에서 묵묵히 짊어지는 수년, 길게는 이십 오년 넘게 섬기시면서 지금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열매는 우리가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우리로 씨를 뿌리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험판이나 교사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과 서로의 처지를 더욱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식지의 구성하고 있는 단락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슈’ - 그달의 중요한 사건이나 주제들 다루는 단락입니다.

‘뉴스’ - 각 부서의 소식을 전하는 단락입니다.

‘연재’ -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은 매달 조금씩 나누어 연재하는 단락입니다.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안성희목사님이 ‘시연아빠의 다음세대 문화이해하기’ (다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글을 연재하실 것입니다. 또한 발행호수가 늘어감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연재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 이 단락에서는 해외의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 그 달에 필요한 제1교육위원회 전체 광고나, 소식지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 대한 광고 등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소식지를 시험판으로 먼저 내는 이유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소식지를 만들어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소식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이해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태준 목사 : 남포교회 담임목사
(깊고푸른얼굴)발행인

승강기의 고장으로 극이 시작된다.

이 날은 크리스마스이브였다.

1면에서 ▶ 제 나름대로 정리한 뮤지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뮤지컬은 고층빌딩 승강기에서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하나경이 혼자 등장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이 승강기에는 75세 노인인 천태평(이 배우는 자기가 천하태평이어서 이름도 천태평이라고 했다)이 등장하고 다음에는 중년남자인 방정식이 등장하며 역시 중년여자인 최선영이 승강기를 탄다.

이 승강기는 사십층이 최고층인데 기계 고장으로 삼십 몇 층에서 멈추는 것으로 극이 시작된다. 이 날은 크리스마스이브였다

(2) 어차피 한 공간에 있게 된 사람들은 처음 불안했던 심정을 뒤로 한 채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게 된다. 최선영의 사연은 이 고층빌딩의 주인이 자기 남편인데 남편은 지금 40층에 있고 자신은 그에게 이혼서류

에 도장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 했다. 이혼사유는 이랬다. 자신은 결혼 전에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무조건 돈 많은 남자를 택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아무런 인간미가 없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심지어는 최선영의 아버지인 장인이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으며 잘 치르라고 돈만 보냈던 것이다. 돈 때문에 모멸을 참고 살았던 최선영도 여기서 폭발했던 것이다.

우리가 비록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 즐거운 파티를 하자!

(3) 방정식은 40세 안팎의 젊은 중년이었다. 그는 이 빌딩에 있는 회사의 이사였다.(대표는 최선영의 남편이었고 하나경은 직원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 밤에 40층에 있는 사장에게 사직서를 내려 가는 길이었다. 그는 지방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승진에 목숨을 걸었고 고향에 한 번도 내려가지 못해 자기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불효를 저지른 것이 계기가 되어 사표를 결심했던 것이다.

(4) 멈추어 있던 승강기 문이 갑자기 열리고 초라한 행색의 한 노년남자가 들어왔다. 네 사람은 깜짝 놀랐지만 너무 놀라 문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즉, 승강기는 밖에서는 열 수 있었고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채로 멈추어 있었던 것이다. 관객들은 이 부분을 너무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곧 알게 되지만 이 사람은 하나경의 친아버지이며 나경이를 보기 위해 매일 한 번씩 딸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승강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작가가 고심 끝에 이런 설정을 한 것이고 우리는 다 너그러울 수 있다. 아참, 최선영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다 되어서 구조를 위한 통화가 불가능했고 방정식은 이런 곳에서는 통화가 잘 안 되는 아주 오래된 벽돌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이 휴대전화는 방정식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고 작가는 이 소품으로 방정식과 아버지를 연결한다)

이런 설정이 어색하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뮤지컬을 아니 연극을 많이 안 보신 관객일 뿐이다.

고아원에서 자란 후 20살이 가까워져야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경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경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다가 마지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 지난 십 몇 년 동안의 고생, 그리움, 외로움 등이 한데 뭉쳐 증오가 되었고 증오로 닫힌 나경의 마음은 매일 아버지가 찾아와도 열리지 않았다.

(6) 천태평도 그렇게 태평한 인생은 아니었다. 부잣집 딸과 결혼한 뒤 결국은 부모를 버리게 되었고 한때는 잘 나가다가 지금은 거의 노숙 직전까지 이른 노인이었다.

이 다섯 사람의 사연이 적절한 노래와 페이드아웃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펼쳐지다가 이 드라마는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천태평으로부터 역전의 계기가 시작된다.

천태평은 우리가 비록 좁은 공간에 갇혀있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이니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극 내내 구부정했던 허리를 쓰윽 펴더니 힙합 모자를 배낭에서 꺼내 쓰고 선글라스를 쓴 후 젊은 래퍼가 되어 이 파티를 주도해 간다. 이때 뮤지컬은 여러 합창단들의 도움을 받으며 모두가 즐겁게 노래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참’ 이고 무엇이 ‘거짓’ 인지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네 명의 사람들도 합창단과 함께 노래하다가 끝나면 장면은 다시 멈추어 있는 승강기 내부로 돌아온다.

(7) 그들은 운명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 성탄절 새벽까지 함께 있는 동안 각자의 마음 속 응어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성탄절을 맞게 되고 천태평의 제안으로 미움을 풀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온다.

제일 먼저 방정식은 사직서를 꺼내어 찢어버린다. 그는 말한다. 이제 나는 가족을 먼저 위하여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겠다. 다음은 최선영이 이혼서류를 찢었다. 최선영은 말한다. 우리 남편이 좀 까칠하긴 해도 내가 더 잘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나경과 나경아버지는 화해를 한다. 천태평은 이렇다 할 화해의 에피소드가 없지만 그는 노인이 젊은 래퍼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한 것으로 작가는 용서해주었다.

뮤지컬을 보고 난 후의 소감

(1)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해보면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무섭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6학년만 되면 스마트폰 다루는 솜씨가 도저히 선생님들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미 이릅니다. 컴퓨터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어리고 덩치가 조금 작을 뿐이지 이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은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중·고등부는 더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기계적인 실력 뿐 아니라 실제로 학문 등에 대한 실력이 선생님들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종종 연극 등을 무대 위에 올리지만 처음 얘기했듯이 이렇게 본격적인 대형 뮤지컬을 중·고등부 연합으로 무대에 올린 것은 기쁜 일이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마이크부터 첨단으로 보강되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배우들은 얼굴에 붙이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이동시 마이크 몇 개로 서로 주고받으며 연기하던 구시대를 벗어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기 또한 대단히 성장했고 노래도 열심히 연습한 흔적이 가상했으며 특별히 모든 반주를 피아노 라이브로 했다는 것은 칭찬을 아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 뿐 아니라 안성희 목사님과 중·고등부를 이미 떠난 선배들의 노력과 후원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3)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교회는 항상 구식 같고 보수적이며 재미가 없고 교훈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혁신적이고 멋있으며 재미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참’ 이고 무엇이 ‘거짓’ 인가를 식별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보고 배운 방식으로 공연을 했지만 이 공연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포기하고 분열하고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위로하고 풀어주고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 한 편의 작품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는 글

(1) 이들은 사는 동네를 말할 때 흘리는 것처럼 남포동이라 했습니다.(이것을 부산 남포동이라고 생각하는 관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메시지는 우리 남포교회 전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2)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그 화려하나 공허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에게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아이들은 훌륭하게 어른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3) 이 뮤지컬을 한 번 더 해주면 안 될까요? 더 많은 어른들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

이재철 안수집사 : 초등3부 교사

(편집자 주 : 이 글은 지난 성탄행사 때 중고등부의 뮤지컬을 보고 교회홈페이지에 올린 이재철 집사님의 글을 수정하여 올린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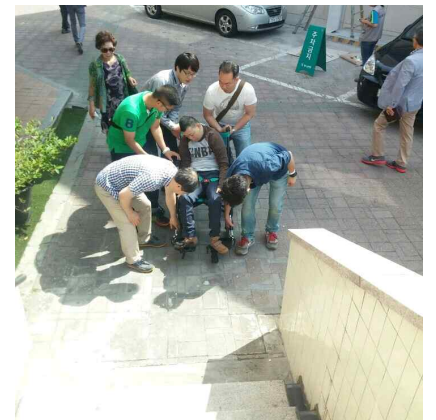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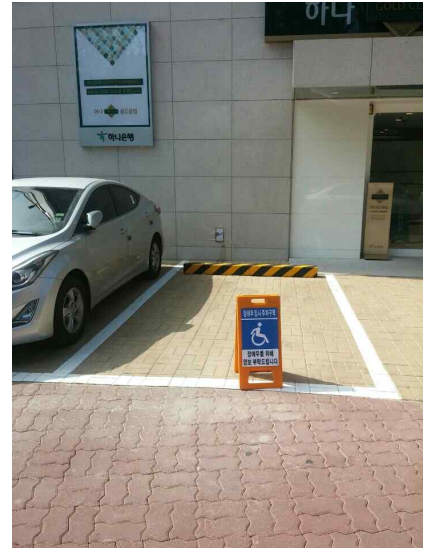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작은 공동체

사랑부는 <이웃사랑 실천>, <사회적 약자들 돌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2003년 5월 18일 교회의 전적인 지원과 지도 아래 중증장애인들의 예배와 신앙을 돕기 위하여 개설된 부서입니다.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20여 명과 보호자, 그리고 교사 40여 분이 주일 오전 10:00-11:30까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점심식사를 통해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근육마비, 운동기능 장애 등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들 역시 생활고와 오랜 병치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교우와 이웃들입니다. 사랑부의 교역자와 교사들은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공동체라기보다는 삶을 함께 나누며, 남포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작은 이웃공동체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과 인지적 장애를 가진 학습자들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사랑 표현과 정성어린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우 가족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섬김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용기를 가지고 살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부의 통전적인 교육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마다 장애우 가정의 식구들을 초대하여 학생, 교사, 가족 3자가 함께 어울려 소통과 공감을 나누며, 예배의 방법도 영성과 감성, 인지와 감각을 조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특수교육 영역에 따르는 여러 무게감들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으며, 휠체어 봉사, 장애인 차량 봉사,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사랑 나눔과 부의(贈義) 등 어려운 목회 항목들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포교회에 다니고 있는 **5살** 이하랑입니다.

제 동생 하음이는 **4살**인데, 저와 함께 **유아부 예배**를 드려요.
유아부 예배에는 하음이 보다도 더 어린 **3살** 동생들이 있기도 해요.
어린 동생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형님이니까 동생과 함께 씩씩하게 예배를 드려요.

유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2시**에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가 3부 예배를 드리러 가시기 전,
저와 제 동생을 2층에 있는 **제1교육관**으로 데려다 주세요.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해도 저희는 항상 유아부실로 가요.
왜냐하면 유아부예배실에는 장남감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배 전에 친구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블록놀이,
시장놀이, 자동차놀이, 인형놀이는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유아부에 일찍 가자고 조르기도 해요.
하지만 예배시간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는 없어요.
예배시간이 시작되면 선생님께서 정리를 시작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정리를 도와드리거든요.

유아부 예배에 가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데,
그건 아마도 선생님들이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건데, 아직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정말 즐겁고, 좋기
때문이에요.

유아부 예배시간에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만들기도 하고,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재밌는 놀이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간식을 먹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저를 데리러 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분반 공부를 하기 전에
생일잔치를 하기도 하고,
암송말씀 외우기도 하고,
찬양대회를 하기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부활절**에는 예쁜 달걀을 주시고,
어린이주일에는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걸 축하하며,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본당에서 찬양을 해요.

저와 동생은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유아부에 가는 건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나랑 함께 할 친구들이 있고,
나를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나를
귀여워 해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유아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유아부 예배가
너무 좋아요.

유아부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줄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만 사랑 하는 유치부



정말로 좋은 하나님만
사랑 할래요!
정말로 좋은 하나님만
사랑 할래요!!

정말로 좋은 하나님을 향한
6-7세 어린이들의 순수한 고백이
가득한 유치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유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관을
배워나감으로 몸이 건강하게
자라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함께하십니다.

교회의 한 지체인 유치부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말씀과 은혜의 초등1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곳
선생님들의 사랑이 가득한 곳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곳

남포교회 초등 1부 입니다.

한해한해 아이들이 말씀과 더
가까워지도록 사랑으로 품는
선생님들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표현해 가는 아이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찬양과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져 행복한 초등 1부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려는 열심으로
2015년 한해를 꾸려가려고 합니다.

바르게 아름답게 신앙인으로
자라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의 씨앗이 싹을
틔워 아름다운 나무가 되듯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 장성한 성숙한
일꾼들로 자라길 기도하며,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여자 친구, 초등2부를 소개합니다.

한 번 상상해보라!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날지는 모르지만...

하늘은 겸손하게 저만치 물러서서
맑은 얼굴을 하고
땀에 부딪치는 공기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상쾌한 가을 어느 날,
나는 그녀를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했고,
오늘-그녀와 데이트하는 날, 나는
약속보다 30분 먼저 가서,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녀를 즐겁게 해줄까
마음 설레이고 있고
그녀의 그 하얀 미소로 마냥
행복해 하는 나를,

그 후로 30년이 지나갔지만
나는 아직도 이 마음을 느끼고
있다.
초등2부 봉사로 시작되는
주일날마다 이 마음에 나를
설렌다.
주일 9시 30분에 시작되는
초등2부 교사회 시간,
선생님들은 벌써 9시부터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
성가대 선생님은 아이들과 주일
찬양을 연습시키고
서무 선생님들은 주보를 접고,
의자를 가지런히 펴며 예배
준비로 분주하다
이제 신혼인, 그래서 한참 더
이뻐보이는 김정현 전도사님은
씩씩한 웃음으로 선생님들을
맞으며
나의 주일 데이트는 이렇게
시작한다.

교사회의의 하이라이트는 3분 스피치
20대에서 70대까지 버라이어티한
선생님의 나이와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은혜의 삶의
스피치는, 한결같이 모두가 내 신앙의
선배요 애인이다.
10시부터 시작되는 초등2부 예배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한껏 배운다.
등지 안에 어린 제비 새끼들이, 먹이를
물고 오는 엄마 제비를 목 빠지게
기다리듯이
매 주일을 담임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일 년 중 한 주일도
빠지기가 어렵다.

조기 학습과 학원으로, 지친 몸과
영혼의 아이들이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에게 폐도 써보고,
애교도 부리며 즐거운 예배를 드린다.

주님 안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는 초등2부!
저희 초등2부와 애인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글 : 황준규(초등2부 교사)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초등3부

초등학교 5학년,6학년으로 이루어진 초등3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장면과 피자, 게임과 문상(문화상품권)을 좋아하는 하는 아이이지만 작년과 다르게 키도, 마음도 쑥쑥 자라 목소리도 조금씩 변성기로 접어들고 몸과 마음이 많이 성숙합니다.

5학년 친구들은 학기 초에 막 초등 2부에서 왔던 아기 티가 벗어지고 …… 6학년 친구들은 곧 중학교에 가는 기대와 함께 벌써 중학생 성숙미를 비춥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작은 선물에도 아주 기뻐해주는 귀여운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재능이 많아 주일 아침이 되면, 바이올린과 플룻, 기타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초등 3부는 정말로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밖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교회에서는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우며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 초등 3부의 자랑입니다.

우리 초등 3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매주 제 2교육관에서 10시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초등 3부에서 함께 예배해요!



외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중등부

외계인(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어른과 다른 세계를 산다는 뜻)이란 단어로 표현되는 한국의 중학생들은 쉽사리 다가가기 어려운 그래서 선뜻 말을 걸기도 무섭게 느껴지는 이들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죽이심으로 끌어안은 자들이며,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면 ‘현존하는 미래’ 이고, 사랑에 굶주린 하나의 인격체들입니다.

우리 남포교회 중등부는 이 중학생들이 외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안고 사랑하는 자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어른들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사랑 받고 싶다는, 존중 받고 싶다는’ 아우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우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희 중등부 교사와 교역자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며 이들 눈높이에 맞게

신앙교육을 하려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로 인해 좌절할 때가 많고 막막할 때가 많지만 그 좌절과 막막함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과정을 알기에 당장에 변화가 없더라도 묵묵하게 기다리며 우리가 맡은 몫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등부에서 어떻게 그 몫을 감당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 다음 면에 계속

벽을 계단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주일 예배 : 매주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선교관에서 90여 명의 학생과 40여 분의 선생님들이 정해진 예배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떠들고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선생님과 교역자가 당황스러워 할 때도 있지만 그 모습까지도 주님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너희들(교사)의 몫을 다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중 일어나는 특별하고 은혜로운 사건(?)을 하나 소개하자면, 중등부 성가대가 올해부터 화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학생들이 화음을 내다니요? 늘 단음으로만 소리를 내던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해부터 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매주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서 들어오지 않으실래요?

공과공부시간은 가끔 선생님들에게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벽에 대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벽을 계단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주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말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 토요일모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나니아 연대기' 책 읽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다 끝내고 올해는 《캐스피언 왕자》를 읽고 있습니다. 2시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함께 읽은 후 내용 확인 질문을 통해 내용을 점검하고 이후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본 후 몇 가지 이슈를 정해 토론을 하거나 인도자가 질문을 던져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아슬란과 네 남매의 이야기 속에는 기독교세계관이 풍성히 담겨 있어 성경 속 진리를 이야기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물론 2시간 동안 중학생들 데리고 인도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교역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종종 뜻밖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며 위로도 받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답니다.

3) 그 밖의 행사들 : 에너지가 넘치는 중학생들이기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합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고등부와 함께 뮤지컬을 준비하여 발표했는데 아직도 그 활기차고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한 '차 판매 행사' 도 참여한 이들이 큰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고민과 성장의 공동체

남포교회 고등부는 김창선목사님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선생님 과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매주 주일 오전9시에 제2선 교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부에는 청년 보조 선생님들이 계셔서 학생들과 선생님 중 간에서 주로 세대 간 소통을 도와주고 계시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등부 내에는 매주 성가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부와, 찬양으 로 자신의 달란트를 감사하며 섬기는 찬양부,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주보를 만들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는 편집부가 있습 니다.

무엇보다 김창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 들도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며,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 는 깊이 있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10시부터는 각반별로 분반공부가 진행되는데, 각 선생님의 달 란트대로 다양한 색깔을 내며 그 다양한 색상이 채색되어 흥 미진진하고 다이내믹한 고등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원들 또 한 자발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 다.




도서출판 영음사

다시 보는

사도행전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을 걸어 온 교회



박영선 목사,
긴 시간이 지나
다시 펼쳐드는 사도행전

박영선 저 | 568쪽 | 25,000원

- 베테랑 목회자가 평생 동안 목회하며 축적해온 철학 _ 송태근 목사
- 세상 속에 남겨두신 교회의 실존적 상황 직시 _ 이문식 목사
- 하나님 중심의 선교 역사로 중심을 잡아주는 길잡이 _ 이재훈 목사
- 지금의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 속에 읽으며 열린 안목 _ 정현구 목사
- 본질과 내용의 회복이라는 도전 앞에서 선 한국교회에 시의적절 _ 화중부

지금 교회 3층의 무근검(남포교회출판부서점)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시연아빠의 다음세대 문화 이해하기(1)

1. ‘디지털 네이티브’와 ‘아날로그’의 충돌(?)

Text와 Context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시대를 이해하고(understand the times),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지도자 200명이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복음의 본질은 시대와 상관없이 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시대는 변한다. 다른 말로 풀면, 본질인 text는 변함이 없으나 본질이 전달되는 상황인 context는 변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text 뿐만 아니라 context에 대한 바른 이해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질은 결코 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 월간 잡지 중에 ‘복음과 상황’이 있다. 같은 맥락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무대가 상황이기에 복음도 중요하지만, 상황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연재는 ‘기성세대와 다음세대 문화의 간격에서 오는 충돌을 줄여 보자’는 의도에서 기획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겠지만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런데 그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 상황(context)이다. 어른 세대가 겪었던 시대와 다음세대가 겪는 시대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 상황이 서로 다른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원인이 되어 서로 다른 사고체계, 생활방식을 만든다. 또 사고체계와 생활방식은 다른 문화를 형성하곤 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나눠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결국 다음 세대를 양육할 책임과 실질적 권한(주도권)이 기성세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이러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의 ‘현존하는 미래’인 다음세대를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이티브와 아날로그 개념 (《십대사역 세우기》, 팻머스문화선교회 부분 참고)

역사적으로 보면 미디어의 발달은 늘 기존의 질서를 뒤틀어 왔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왔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변하는 사이 10, 20대들이 비틀스와 히피 문화에 열광했다. 오늘날 미디어의 키워드는 ‘디지털’이다. 이 디지털이 만들어낸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대 학자들은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주민’란 개념을 도입한다.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 모든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마치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듯이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설명서 없이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②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 : 외국어를 구사할 때 모국어 억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 이전의 흔적으로 보이며 디지털 언어 구사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는 하나 원주민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는 어려워한다.

③ 아날로그 : 새로이 접하는 디지털 기계와 문명을 마치 이방인처럼 바라보며,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우리의 현실 이해

앞에서 소개한 개념을 오늘날 현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모와 교사세대(4~50대) : 이들 중 디지털 이주민도 있으나 대체로 아날로그 세대로 볼 수 있다.
- ② 일부 교사세대와 교역자(30대) : 디지털 이주민에 해당한다.
- ③ 다음세대(10~20대) : 디지털 원주민이다.

다른 나라에 갈 때 먼저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운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지만 실재는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물론 다음세대도 기성세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인생을 먼저 산 넉넉한 선배로서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세대, 외계인이라고 자꾸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여 보자! 그들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동족이다!

(다음 호에 계속)

안성희 목사 : 중등부 담당 목사
시연이 아빠

일본에서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사카는 벌써 초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입니다.

이번 4월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달 노숙자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도시락 이외에 직접 만든 빵을 나눠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드는 전날에 모여 준비하여 그 다음날 도시락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노숙자 분들이 기뻐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절 특별 집회를 통해 전도한 넌크리스천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희망이요 힘의 근원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학교에서 동아리나 서클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걸 보고 저희도 대학교 동아리 형식과 같은 모임으로 교회 가스펠 합창부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눠진 전단지를 보고 온 청년들 중에 교회로 연결되어 세례까지 받고 같이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특히 입학식 때는 많은 동아리나 서클 활동하는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부서를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때 저희도 매년 8000장 정도의 전단지를 오사카 지역에 있는 6-7곳의 대학교에서 가스펠 합창부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올해는 입학식날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전단지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서 전단지를 받는 한명한명의 일본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해는 만장 가까이 나누어도 한명도 연락이 오지 않는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감사하게도 벌써 두명의 대학생이 전단지를 보고 저희 가스펠 합창부에 흥미를 가지고 연락이 와서 교회까지 보러 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연결된 이 청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시절에 꼭 자기의 창조주를 알게 되고,

자기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일본 오사카에서
유창경 선교사 드림

★4월은 놓칠 수 없는 대학교 캠퍼스

전도의 기간!

오사카 지역 대학교 입학식 시즌인 4월은 청년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 교회로서는 일년 중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전도의 시기입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본 적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란 종교적인 곳으로 두려워서 선뜻 발걸음을 옮기기 힘든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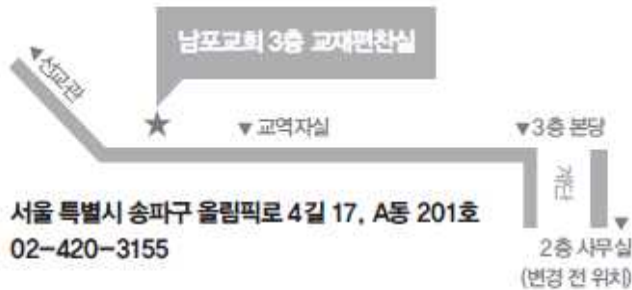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접적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초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남포교회 구내 서점이전 안내

2015년 5월 24일부터 남포교회 구내 서점이 3층으로 이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 변경 위치



● 서점 운영시간

화·목·금 9:30 am ~ 5:30 pm
수 9:30 am ~ 9 pm / 토 9:30 am ~ 2 pm / 주말 8 am ~ 3 pm

● 남포교회 구내 서점에서는 도서를 정가의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온라인 구매 안내

www.lamp.or.kr ▶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도서 클릭'

| 남포교회출판부가 펴낸 도서 |

박영선 목사가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꼭 읽히고 싶은 설교

주의 말씀에 둘러싸여

박영선 저 | 2014년 4월 | 344쪽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규하듯 풀어낸 <호세아> 강해 설교

박영선의 호세아 설교

박영선 저 | 2014년 10월 | 278쪽



남포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설교집

다시 보는 로마서

박영선 저 | 2015년 1월 | 728쪽



박영선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공부 시리즈

성경공부 101-호세아

박영선 저 | 2015년 2월 | 120쪽



〈광고〉

1. 남포교회의 교사들을 위한 소식지인 〈깊고 푸른 얼굴〉 시험판 1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주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소식지는 PDF파일로 교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3. 각 부서의 소식은 매달 첫째 주 주일까지 편집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함께 나누고 싶은 선생님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역시 편집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의도에 따라 원고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이메일 : nabinaru@gmail.com (윤철규 목사)

〈공모전 안내〉

할아버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박영선 목사님께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목사님께 하실 질문을 〈깊고 푸른 얼굴〉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질문을 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깊고 푸른 얼굴

깊고 푸른 얼굴은 성경과 역사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서 있는 교사의 얼굴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